

“부산풍물패 이음쇠” 창립22주년 기념

어려라 흥이로다



일시 | 2013년 10.27(일) 오후3시

장소 | 부산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주최 | 부산풍물패 이음쇠

후원 | 부산문화재단 / 부산예술단 /

부산광역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 공연은 부산문화재단의 2013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촉진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도움주신 분들

부산예술단 |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52-15번지. 254-9642. <http://www.bpac.or.kr> 단장:김상헌

부산민속국악사

|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5-10번지. 326-3710. HP.011-874-3710 <http://www.lets080.com/~minsok/> 대표:이근재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산2-3번지. 242-3100. <http://www.gdms.or.kr> 이사장:김기업

(사)판소리보존회 부산지부 이정하 소리재

|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294-11 크로비D-702호 254-6538.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부가 이수자. 원장:이정하

어울림 국악연구회 | 부산 중구 동광동 4가 23-1. 467-7975. <http://cafe.daum.net/eoullimgugak/> 회장:박영섭

KT 부산 갈매기예술단 | 부산 서구 아미동 1가17번지 KT서부산지사 B1. HP.010-2833-3333 회장:최호영

부산 본부세관 풍물단 | 부산 중구 중앙동 4가17번지. Tel.051-620-6375 회장:주근선

낙동민속보존회 | 부산 북구 덕천1동 412-28. www.nakdong.org/ 341-1771. HP.010-3883-0664 회장:김도경

흥을 사물놀이 |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360번지. 241-3313 <http://cafe.daum.net/haulpungmul/> 단장:김정용

소리터 전통타악연구소 | 부산 사하구 하단동 506-18 5층. 294-0909. <http://cafe.daum.net/goodpungmul/> 대표:기금순

매구놀이마당 | 부산 사상구 학장동 276-25. HP.010-5488-5941. 단장:강신일

버슴새 예술단 | 부산 수영구 광안2동 751-3100. 최정민

참상래한치과병원

| 부산 동구 초량동172-16(초량지하철1번출구 100m앞) 464-2753~4. FAX:464-2755. HP.010-8301-7873 대표:이도경

釜山베아링商社(수입품 · KBC도산매)

| 부산 사상구 주례1동 691-23번지. 311-6019. FAX:311-6021 HP.011-578-2913 대표:차윤준

한국의상 현 | 부산 동구 범일2동 652-9번지. 633-6339. HP.011-880-9944 대표:박영명

창선문구 | 부산 중구 신창동 6공구 B동. HP.010-5002-4442 대표:신현숙

송원재접국 | 부산 토성동 아미우체국 옆 253-1293. 대표:신태영

풍물패 이부디 | 부산 남구 문현3동 202-69번지. HP.010-5194-6183 대표:최의철

(사)부산대학교후리소리보존협회 | 부산 사하구 다대동 408-6. 263-0757 이사장:엄경열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보존회 회원 일동

무형문화재 제11호 구덕망개터다지기 회원 일동

무형문화재 제18호 고분도리 걸립 보존회 회원 일동

고분도리 걸립 | HP.010-9926-5100 정은희

디딤돌 | HP.010-9513-3507 단장:박국자

부산 아미주부여성농악단 | HP.019-330-2832 회장:유정희

성준정밀 | 대표:김종인

신라커피숍 | 대표:김수현

마린테크니칼 | 대표:이경원

대림탕 | 부산 진구 보수동 1가. 대표:권영미

부광인쇄사 | 부산 진구 전포2동660-15번지. 802-9877. HP.017-840-8463 대표:우인덕

※ 공연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부산자갈치시장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님과 임직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풍물패 이음쇠

모시는글



회장 전 조수
· 부산풍물패 이음쇠

천고마비(天高馬肥)! 10월의 맑고도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부산 국제영화제와 자갈치축제 부산의 명소이기도 한 이곳 자갈치에서, 부산풍물패 이음쇠의 정기발표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인 10월을 문화와 축제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무던하도 더웠던 올해 여름을 지나고 삶의 부대끼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우리의 전통 문화와 음악을 통하여 위안과 신명을 나눌수 있다면,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풍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풍물과 함께했던 이음쇠의 지난 날들이 그러 했듯이, 앞으로도 신명과 위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즐겁고 신명날 그 날들의 신명행사들을 기억하며, 10월 27일 부산시민 대중들과 함께 할 흥겨운 한마당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항상 이음쇠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풍물패 “이음쇠” 소개

“이음쇠”란 우리의 풍물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우리 것을 잊어가는 이들에게 전통음악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우수한 문화민족의 일을 되새기며 삶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하여 모인 순수한 동호인 단체로, 부산지방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의 장구 예능보유자인, 故 여산(如山) 이몽식 선생님의 문하생으로 시작되어 현재 부산농악 전수조교인 김상헌 선생님의 제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부산풍물패 이음쇠 : 부산 서구 서대신1가 52-15번지. H.P 010-9891-5058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lkeh4392/>



부산풍물패 이음쇠

축사



단장 김 상헌
· 부산예술단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아름드리 향을 피울 수 있는 신명난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설레임은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이음쇠 단원들의 공연은 늘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왔고 그 파장은 오랜 기억으로 남습니다. 자신들이 점한 위치에서 진정성 있는 삶의 자세,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에서는 더 할 수 없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는 멋진 이들의 공연이란 어떠한 수식어가 필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음쇠 단원들의 역사는 부산의 풍물패 동호회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맥을 유지하는 힘은 저마다 다른 개인적 특성의 존중,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음악적 끈으로 연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마다가 담은 마음의 장단 하나하나 이들의 인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단원들은 객관화된 무대를 위해 한층 성숙된 면모와 음악적 대화로서 진정한 음악의 가치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국의 흥, 한국의 멋, 한국의 정이 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관객들의 마음에 윤택한 활력소가 되어 저와 같은 오랜 설레임으로 간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소통이 이들의 음악과 함께 즐거움과 행복이 곁에 자리할 수 있는 소망과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멋진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객 여러분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되며 서막이 오르기전 여러분의 파장으로 이음쇠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 용 일
· 전 동국대 교수

동호회란 뜻은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락을 즐기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만 즐기려 하지 않고 여러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리고 또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누고자 공연을 펼쳐 보이며 합니다.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연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여름내내 땀흘려 연습에 또 연습을 더하여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가락을 들려 주고자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문화를 즐기는 것 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쁜 나날을 이어가야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즐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쪼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음쇠 풍물패 회원들은 바쁜 생활에 쫓겨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떠나 아무나 아무런 격식없이 그저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노천 공간에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야외공연은 무대공연과 달리 주위가 산만하고 음이 잘 모아지질 않아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초대되지 않은 많은 사람과 같이 우리의 음악을 나누고자 야외공연을 택한 이음쇠 회장 전조수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가락 아름답고 황홀한 연주를 기대해 봅니다.

부산풍물패
이음쇠

부산 풍물패 "이음쇠" 연혁

- 1991. 10. 1. 이음쇠 창단
- 1993. 8. 3. 대전엑스포 참가
- 1993. 8. 8. 제4회 부산풍물패 광안리 해변연주회 참가
- 1995. 8. 15. 서울 광복축제 참가
- 1995. 10. 5. 부산 시민의날 행사 참가
- 1996. 11. 30. 창단 5주년 기념발표회(부산 시민회관)
- 1997. 6. 7. 제22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풍물부문 '금상' 수상
- 1998. 1. 1. 부산시 응두산공원 신년맞이 행사
- 1998. 5. 24. 제23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풍물부문 '은상' 수상
- 1999. 11. 21. 문화회관 중강당 발표회(창단8주년)
- 2003. 6. 21. 여수 거문도 주민을 위한 놀이마당
- 2003. 10. 4.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 기념식 공연
- 2003. 11. 8. 창단 12주년 기념공연(을숙도문화회관)
- 2004. 5. 5. 벅스코 전국 무술대회 찬조출연
- 2005. 5. 7. 광복로 축제행사
- 2009. 8. 22. 응두산 토요일상설 공연
- 2009. 10. 18. 부산시민체육대회 행사
- 2010. 5. 5. 어린이대공원 공연
- 2011. 4. 6. 통영 육지도 공연
- 2011. 11. 19. 부산응두산공원 창립20주년기념 정기발표회
- 2013. 3. 24. 제43기 수강생 졸업
- 2013. 6. 4. 구덕살내체육관 예천군 향우회 공연



부산풍물패
이음쇠

부산 풍물패 "이음쇠" 공연순서

첫째마당 **영남성주놀이**

남부지방 중에서도 영남과 부산지역에 전승되어 중요한 레퍼토리가 된 영남성주놀이는, 우리네 삶의 근간인 집과 가정을 관장하는 성주님께, 소원성취와 만사형통을 기원하며 연주하는, 의식과 풍물연주를 기미한 연희 형태이다.

출연 쇠: 전조수, 차윤준 징: 신현숙, 박성재 장구: 나명옥, 유정희, 이미옥, 이정애
북: 박정기, 최호영, 최홍영, 박천수, 이수희 소고: 최경란, 배현숙, 김경순, 정복례

둘째마당 **영남농악**

경상도 지역의 특징과 기운이 넘치는 풍물가락으로, 팽과리와 북이 주축이 되어 남성적인 기상이 강하게 돋보이는 연주가락이며, 연주 중간에 사설(辭說)이 들어가는 것도 경상도 음악의 특징이다.

출연 쇠: 김두만, 박성재 징: 전조수, 유정희
장구: 최경란, 이명진, 옥금주, 권태영, 최옥순, 이도경, 김예선, 박정순, 김경순, 정복례, 김석순
북: 박천수, 이수희, 신태영, 신현숙, 이다남, 김홍조, 현광무, 권영미

셋째마당 **가락장구**

장구의 다채로운 장단과 가락을 연주하는 장구의 합주로, 영호남과 중부지방의 장구가락을 모아서 탄생한 것으로, 이음쇠의 가락장구는故 이용식 선생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출연 최홍영, 나명옥, 옥금주, 유정희, 이미옥, 이다남, 이정애, 최옥순, 차윤준, 권영미

넷째마당 **삼도농악**

삼도사물 가락은 영남지방·호남지방·중부지방에서 연주하던 음악들 중에서 중요하고 대표적인 가락들을 모아 서 하나의 연주곡으로 만든 것으로 사물놀이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출연 쇠: 이정애, 차윤준 징: 박정기, 나명옥 장구: 최홍영, 옥금주, 유정희, 이미옥, 최옥순
북: 최호영, 박천수, 신현숙, 이다남, 권영미

다섯째마당 **모듬북놀이 (부산예술단)**

모듬북은 현대에 와서 개량된 악기이다. 모듬북은 여러대의 음높이가 다른 북을 두개의 채로 연주하기에 다양한 리듬을 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타악기에서 선율을 연주하는 듯하여 화려하게 보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저음을 담당하는 큰 북을 치는 사람과 중간 음역으로 나뉘어 2대 정도의 북을 놓고 치는 사람, 저음, 중음, 고음을 내는 3대의 북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 높은 음으로 구성된 4대 이상의 북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이 어울어져 연주하는 형태가 있다. 주로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원박에서 부터 박을 나누고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같은 리듬꼴에서 서로 다른 악센트를 주기도 하며 음고가 다른 형태로 연주하여 화려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출연 정성훈, 정은진, 박승빈, 황진삼, 김준호, 박성규, 김태형

여섯째마당 **판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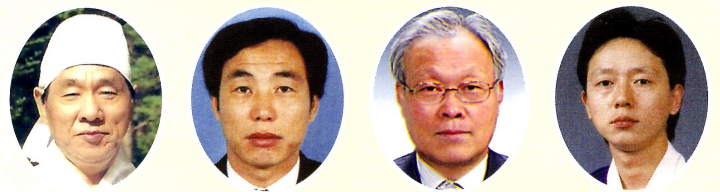
농악은 밭로는 땅을 차고, 손으로는 악기를 맛깔스럽게 연주하며, 머리로는 상모를 돌려 하늘을 휘저으며 여러 형태의 대형과 현란한 동작을 통해, 각 연주자들의 조화와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풍물놀이의 다양한 기예와 재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놀이이며, 끝 부분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각 작업들이 개인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개인놀이가 있다.

출연 쇠: 전조수, 최옥순 징: 신현숙, 차윤준 북: 박정기, 최호영, 최홍영, 박천수, 이수희, 현광무
장구: 나명옥, 이명진, 옥금주, 유정희, 이미옥, 이다남, 이정애, 권태영, 김석순, 권영미 소고: 최경란, 배현숙, 김예선, 김경순, 정복례
태평소: 박성재 대감: 김두만 포수: 김홍조 열두발 상모: 이미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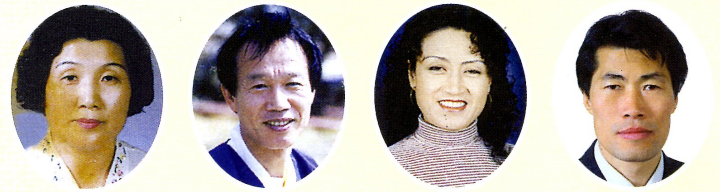
외화극장의외로다

부산풍물패
이음쇠

부산 풍물패 "이음쇠" 회원소개



하정규 · 부산무형문화제 제11호
김용일 · 전 동국대 교수
전조수 · 회장
김상현 · 지도



최경란 · 고문
박정기 · 고문
나명옥 · 고문
최홍영 · 고문



최호영 · 고문
남선명
이명진
박천수
옥금주



오일석 · 고문
김성규
이현주
이수희
이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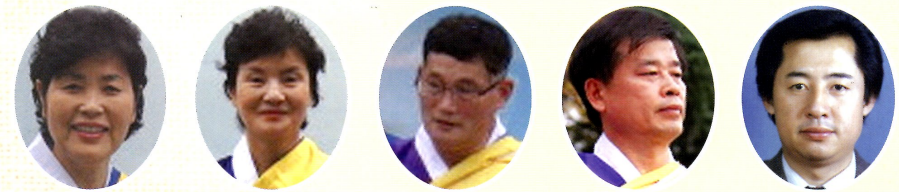


신태영
유정희
신현숙
이미옥
이다남

부산 풍물패 "이음쇠" 회원소개



권태영
김홍조
이정애
최옥순
배현숙



이도경
김예선
현광무
차윤준
박성재



박정순
권영미
김두만
김경순
김석순



정복례
정성훈
정은진

부산예술단
모듬북놀이



박승빈
황진삼
김준호
박성규
김태형

어허라흥이로다

어허라흥이로다